사변이 터지자, 경복궁은 더 이상 정궁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어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결행하고, 그 이듬해인 1897년에 경운궁으로 정궁을 옮기면서 대한제국기가 시작되었다. 예기치 못한 급박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한양의 도시경관은 새로운 변동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의 선포는 이전의 백악과 인왕의 능선을 배경으로 조선왕조 내내 지속되어 왔던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지역은 외국의 공관과 교회 등이 건설되어 이미 근대적인 도시 풍경이 형성되어 가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주변 환경과 함께 경운궁은 황제의 궁궐로서 모양을 갖추어갔다. 그러던 중 1904년 원인 모를 대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모든 전각이 전소되었고, 이후 경운궁은 점점 궁궐로서의 형식과 위상이 실축된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조약으로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대한제국은 이름으로만 유지될 뿐 실질적으로 무력한 국가로 전락한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한다. 1897년에서 1907년에 이르는 대한제국기는 조선왕조 500여 년에 비하여 매우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양의 전통적인 도시경관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도시변동이 시작되고, 근대적인 장면들이 중첩되어 대한제국기의 도시경관이 구축된다.

(2) 근대시기 도시경관 변화

다른 나라 도시들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크게 구별되는 도시변화가 진행된다. 도시의 영역이 확장되고, 밀도가 증가하고, 근대 도시기반 시설이 도입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각 도시의 위상과 지형, 역사와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다르지만, 근대 도시경관으로의 변화를 촉발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